

## 蘇軾 禪詩 의경의 심화양상에 대한 考察\*

柳 知 源\*\*

&lt; 목 차 &gt;

1. 머리말
2. 蘇軾의 禪 수용 배경
3. 蘇軾 禪詩 의경의 심화 단계
  - (1) 入門期
  - (2) 心醉期
  - (3) 修行·禪悟期
  - (4) 禪悟後期
4. 맺음말

## 1. 머리말

소식(蘇軾, 1036~1101)은 宋代 뿐 아니라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다. 그가 살았던 북송 후기는 宋詩의 전성기이며 특히 禪詩의 황금기이기도 하였다. 문인들과 선사들 간에 “以禪喻詩(선을 시에 비유)” 하고 “以詩寓禪(시에 선을 나타냄)” 하는 선시 창작의 기풍이 唐代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소식은 스스로 東坡居士라 부르며 많은 선시 작품을 남겼다. 郭紹虞는 그의 <中國文學批評史>에서 “以禪喻詩는 사람들이 모두 嚴羽의 <滄浪詩話>에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에서 이미 그 의미가 싹뻗

고 東坡의 시에 이르러 더욱 그 뜻이 펼쳐졌다”<sup>1)</sup>라고 하였다. 또 劉熙載는 <藝概·二>에서 말하기를 “동파의 시는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을 잘 하였는데, 그 관건은 실로 禪悟에서 얻은 것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이 말은 소식이 “以禪喻詩”와 “以詩寓禪”의 선문학적 입장에서 宋代에 새로운 시풍과 선풍을 개창하고 발전시킨 시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을 저본으로 소식 시와 선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의 시는 적어도 300편 이상 선시로 간주할 수 있었고 선사와 제자간의 禪問答를 기록한 <景德傳燈錄>을 전고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선종사상이 주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sup> 그리고 소식의 선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식은 入門에서 禪悟까지 선의 체험이 단계가 있었고 그 의경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국내외의 소식 선시에 대한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대체로 삼교융합 차원에서 불교사상을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선과 시의 입장에서 선시만을 가려 심도 있게 연구하는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기에 있어서는 대체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식 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3분기·4분기·5분기·6분기·7분기 등 나름대로의 근거로 분기를 하였으나,<sup>4)</sup> 소식 선시연구는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데다가 주로 내용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소식과 관련된 선의 자료와 선행된 그의 선시 연구의 내용에서 참선단계에 따라 그 분기를 추정하여 나누고, 소식의 선시 작품에서 구체화된 의경의 양상들을 변화 단계별로 고찰해 볼 것이다.

1) 以禪喻詩, 人皆知始於嚴羽<滄浪詩話>, ……則司空圖<廿四詩品>已發其義, 至東坡詩中則益暢厥旨.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臺北: 明倫出版社, 1969, 403쪽)

2) 東坡詩善于空諸所有, 又善于無中生有, 機括實自禪悟中得來.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208쪽)

3) 臺灣學者 蕭麗華는 馮應榴<蘇軾詩集合注>를 저본으로 소식 시에 인용된 불교경전의 전고를 통계하였는데, “<大毘婆娑論> 2 次, <大般若涅槃經> 10 次, <景德傳燈錄> 144 次, <六祖壇經> 2 次, <心經> 3 次, <四十二章經> 4 次, <法苑珠林> 10 次, <法華經> 38 次, <金光明經> 2 次, <金剛經> 17 次, <阿彌陀經> 9 次, <高僧傳> 22 次, <智度論> 3 次, <華嚴經> 25 次, <圓覺經> 18 次, <楞嚴經> 113 次, <維摩詰經> 78 次” 라 하였다. (蕭麗華, <東坡詩의 <圓覺> 意象與思想>, <佛學研究中心學報>, 第十一期, 2006, 189쪽)

4) 曹圭百, <蘇軾詩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5-16쪽 참고.

\* 이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高麗大 中文科 博士修了.

## 2. 蘇軾의 禪 수용 배경

소식의 사상은 몇 차례의 변모를 겪게 된다. 소식의 시문을 보면 그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비교적 혼란한 북송 시기에 유·불·도 삼가사상을 운용한 사상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송대 문인들이 현실에 바탕을 둔 유가적 의식과 정신적 갈등을 해소해주는 불·도 사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현상인데 소식은 그 중 선종 사상을 가장 많이 수용하였던 것이다.

소식이 선을 수용하게 된 원인은, 첫째 불교적 환경이고, 둘째 가족과의 이별과 王彭과의 만남이며, 셋째 정치적 불우함과 선사들과의 교류 등이라 본다.

첫째, 소식은 四川省 眉山에서 태어났다. 미산은 唐代 이후 불교가 매우 성행한 곳으로 宋初에는 이 곳에서 중국 최초의 《大藏經》 '蜀版'이 판각되기도 하였고, 普賢菩薩의 성지 峨嵋山과 중국 최대 석불 樂山大佛이 있는 곳이다.

소식의 부친 蘇洵은 비록 儒學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蜀 출신의 명승 圓通居訥과 寶月大師와 친교가 있었으며 僧傳에는 居訥의 법을 이었다고 전해진다.<sup>5)</sup> 모친 程씨는 眉山的 명문가 출신으로 전통적인 유가의 법도와 불교의 가르침을 잘 조화하여 집안을 다스렸는데 16羅漢을 모셔놓고 매일 茶를 올렸다.<sup>6)</sup>

소식의 繼室 王閏之는 인자하고 불심이 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임종할 때 세 아들에게 아미타불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식은 부인을 위해 十位菩薩像을 헌정하기도 하였다. 侍妾 朝雲은 비구니 義衝의 불제자이며 소식의 말년 수행동반자였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金剛經》 계송을 읊기도 하였다.<sup>7)</sup> 소식은 부지불식간에 고향과 가정의 불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식은 22세 진사에 급제하고 벼슬에 진출할 무렵부터 모친상(嘉祐

2년 1057)과 처상(治平 2년 1065) 그리고 부친상(治平 3년 1066)을 당하였다. 그리고 형제애가 남달랐던 동생 蘇轍과 헤어지며 그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소식은 嘉祐 말년 鳳翔簽判으로 있을 때 지방군관으로 있던 王彭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소식은 처음에 불법을 알지 못했는데 왕팽이 그 대의를 알려주고 의심나지 않게 오묘한 곳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어 佛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8)</sup>

셋째, 소식이 34세 되던 熙寧 2년(1069)은 바로 神宗이 王安石의 국수주의 법가사상(新政)을 시행한 기간이다. 소식은 성격이 매우 강직하였다. 그는 이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적극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왕안석과 政敵이 되면서 평생을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순탄치 못한 정치적 갈등으로 지방관을 자청하였다. 杭州는 북송 당시 불교가 성행하여 고승들이 많았던 곳이다. 소식이 36세(熙寧 4년 1071)에 杭州通判으로 부임하고 여러 고승들과 교류하게 된 것은<sup>9)</sup> 선을 수용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 3. 蘇軾 禪詩 의경의 심화 단계

### (1) 入門期

이 시기(24세 嘉祐 4년 1059~36세 熙寧 4년 1071)<sup>10)</sup>는 소식이 진사에

5) 孫昌武, 《佛教與中國文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149쪽.

6) 《東坡禪喜集》의 <十八大阿羅漢頌> · <眞相院釋迦舍利塔銘> · <阿彌陀佛頌> 등 작품에 기록이 남아있다.

7) 蕭麗華, <東坡詩論中的禪喻>, 《佛學研究中心學報》, 第六期, 2001, 249쪽.

8) 嘉祐末, 予從事岐下, 而太原王君諱彭字大年監府諸軍. ……予始未知佛法, 君爲言大略, 皆推見至隱以自証耳, 使人不疑. 予之喜佛書, 蓋自君發之. (蘇軾, <王大年哀辭>, 《蘇東坡全集》, 後集, 卷八, 河北: 中國書店, 1994)

9) 《佛祖統紀》 卷十二에 “소동파가 처음 항주에 와서 선사들과의 관계가 가장 깊었다(東坡初來杭, 與師最厚)”라 하였는데, 惟度 · 惟簡 · 辯才 · 慧辯 · 惠勤 · 道潛 · 佛印 · 惠思 · 梵臻 · 契順 · 宗本 등 소식과 교류한 선사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朴永煥, 《蘇軾禪詩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47-57쪽)

10) 臺灣 학자 蕭麗華는 “① 蘇軾最早直接關涉佛教應在嘉祐六年, 蘇軾廿六歲到鳳翔任所時. ② 熙寧

급제하고 鳳翔府簽判과 直史官에 임하면서 계속 喪을 당한 기간이다. 그는 일찍부터 선승과 친분이 있었다. 24세(嘉祐 4년 1059) 작품 <初發嘉州>의 '禪客과의 약속시간이 늦어져 뱃전에서 마음을 줄이는 상황'<sup>11)</sup>에서 알 수 있다. 또 <夜泊牛口>에서는 "인생이란 본래 일이 없는 것인데 세상사는 재미에 유혹되어 빈천을 지키기가 어렵다"<sup>12)</sup> 하였는데, 청년기 소식 선의 기본 바탕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6세(嘉祐 6년 1061)에 소식은 동생과 처음 이별을 하며 인생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된다. 초기 작품 <和子由澗池懷舊>를 보면 소식의 선적 사유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人生到處知何似，	정처 없는 인생살이 무엇과 같다 하라?
應似飛鴻踏雪泥。	기러기가 눈밭을 다닌 것과 같으니.
泥上偶然留指爪，	진흙 위에 우연히 발자국 남겼을 뿐.
鴻飛那復計東西。	기러기 날아간 뒤 어찌 동서를 알겠는가?
老僧已死成新塔，	노승은 이미 죽어 새 탑이 세워졌고.
壞壁無由見舊題。	낡은 벽은 무너져 옛 시를 찾을 수 없네.
往日崎嶇還記否，	힘들었던 지난 날 아직 기억하는가?
路長人困蹇驢嘶。	길은 먼데 사람은 지쳤고 나귀는 절뚝이며 울어댔지.

소식은 21세(嘉祐 元年 1056)에 동생과 함께 부친을 따라 경사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澗池에 머문 적이 있다. 5년이 지난 嘉祐 6년 겨울, 鳳翔府簽判으로 부임하기 위해 다시 이곳을 지나게 된 것이다. 이때 소철은 형을 鄭州까지 전송한 후 <懷澗池寄子瞻兄><sup>13)</sup> 시를 지어 보냈고, 소식은 이에 화답한 시이다.

전 4구 "雪泥鴻爪"<sup>14)</sup>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시구이다. 인생이란 마치 기러기가 눈밭을 떠돌다 가는 것과 같다. 기러기가 눈 밧에서 놀다가 어느 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면 발자국도 곧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러기의 존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곧 잊혀진다. '흔적 없는 인생'에 대한 禪理를 담고 있으면서 天趣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후 4구에는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의 고달픔이 묘사되었다. 소식 삼부자를 후하게 해주던 옛 노승은 이미 열반에 드셨고, 낡은 담은 무너져 시구들을 찾을 길이 없으니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인간의 생명도 물질도 덧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二陵에서 말이 죽어 澗池까지 나귀를 탔던 어려운 여정을 되돌아보며 인생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소식은 자연변화의 모습에서 '인생의 본질'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다음 시 <鳳翔八觀·維摩像, 唐楊惠之塑, 在天柱寺>는 소식이 鳳翔의 天柱寺에 가서 維摩詰의 조각상을 보고 인생에 대한 감개를 표현한 것이다.

今觀古塑維摩像，	지금 보니 옛 적에 만든 유사상이
病骨磊砢如枯龜。	병골로 우뚝하여 마른 거북 같네.
乃知至人外生死，	이에 알겠네, 지인이 생사를 벗어났다
此身變化浮雲隨。	이 몸의 변화도 뜬 구름 따르다네.
世人豈不頌且好，	세상 사람들 어찌 건장하지 않으랴
身雖未病心已疲。	몸은 비록 병이 없으나 마음은 이미 지쳤다네.
此叟神完中有特，	이 노인은 정신이 완전하고 믿는 곳이 있어
談笑可卻千熊羆。	담소로 천여 마리 큰 곰도 물리쳤겠네.
當其在時或問法，	그가 살아 있을 때 누가 불법을 물었더니
俯首無言心自知。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어도 스스로 알았다네.
至今遺像兀不語，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각상이 묵묵히 말이 없어도
與昔未死無增虧。	옛날 죽지 않은 때와 늘거나 줄어든 것이 없다네.

四年(1071) 出爲杭州通判後，蘇軾更是遍遊佛寺，向高僧懷璉·慧辯·元淨·契嵩·惠勤·參寥等參法。③ 蘇軾禪佛思想的深刻化應在黃州時期。④ 紹聖年間蘇軾再貶惠州·儋州，其佛學修養已充分匯通三教，有深刻的認識。"라고 하였다。(蕭麗華, <東坡詩論中的禪論>, 《佛學研究中心學報》, 第六期, 2001, 5-6쪽). 필자는 入門期를 24세로 하였다. 蘇詩 24세 작품에 '宗'이라는 선객스님이 첫 등장하고 선시가 있기 때문이다. 嘉祐末, 王弼로부터 불법을 터득했다는 것은 불교의 깊은 이치를 터득했다는 의미이지 기초를 처음 알았다는 뜻이 아니다.

11) 蘇軾, <初發嘉州>: 野市有禪客, 釣台尋暮煙. 相期定先到, 久立水潺潺.  
 12) 蘇軾, <夜泊牛口>: 人生本無事, 苦爲世味誘. 富貴耀吾前, 貧賤獨難守.  
 13) 蘇軾, <懷澗池寄子瞻兄>: 相攜話別鄭原上, 共道長途怕雪泥. 歸騎還尋大梁陌, 行人已度古嶠西. 曾爲縣吏民知否? 舊宿僧房壁共題. 遙想獨游佳味少, 無方驢馬但鳴嘶.

14) 宋代的 天衣義懷(993-1064)의 전고를 인용한 것이다. "기러기가 허공을 날으니 그림자는 차가운 물에 잠긴다. 기러기는 발자국을 남기려는 뜻이 없고 물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없다(雁過長空, 影沈寒水. 雁無遺蹤之意, 水無留影之心)" (普濟, <天衣義懷禪師>, 《五燈會元》, 卷下, 臺北: 中華書局, 1992, 1016쪽)

維摩詰은 말 없는 ‘침묵’으로 유명하다. 이 시는 문수보살과 유마힐의 不二法門<sup>15)</sup>에 대한 전고를 활용하여 실상의 이치는 “차별이 없다”는 禪理를 표현하고 있다. 유마힐은 인도의 불제자였는데 사람들에게 육체와 정신의 실체를 알려 주기 위해 일부러 병을 앓았다고 한다. 몸은 비록 병들어 보잘 것 없었지만 生·死에 걸림이 없었던 유마힐을 기억하며 소식도 정신적 자유를 얻고 싶었던 듯하다. 세상 사람들은 설사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도리어 정신은 건강하지 않다. 높은 수행력으로 안팎이 하나이고 짐승도 설복시키는 맑은 정신적 힘을 가진 유마힐을 흠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은 이 기간 잦은 喪과 헤어짐을 당하면서 ‘인생에서의 이별’이라는 문제에 대해 숙고하였다. <辛丑十一月十九日, 既與子由別於鄭州西門之外, 馬上賦詩一篇寄之>, <將往終南和子由見寄> 등에도 이별에 대한 禪理가 담겨 있다.

## (2) 心醉期

이 기간(36세 熙寧 4년 1071~39세 熙寧 7년 1074)은 소식이 정치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시기이다. 그는 왕안석의 新法 반대 투쟁으로 조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의욕에 찼던 자신의 정치이념이 꺾이면서 杭州通判을 자처하게 되었는데, 그 실마리를 찾고자 杭州<sup>16)</sup>의 유명 사찰과 승려들을 방문하며 禪門에 깊이 심취하게 된다.

15) 유마힐이 모든 보살에게 말했다: “인자들이여, 어떠한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 됩니까?” ..... 문수사리가 답했다: “제 생각에는 일체법에 無言無說하고 無示無識하여 모든 문답을 벗어난 것이 돌이 아닌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힐이 묵연히 말이 없었다. 문수사리가 감탄하여: “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문자와 언어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진정으로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로구나” 하였다(維摩詰謂衆菩薩言: “諸仁者, 云何菩薩入不二法門?” ..... 文殊師利曰: “如我意者, 於一切法, 無言無說, 無示無識, 離諸問答是爲入不二法門.” ..... 時維摩詰默然無言. 文殊師利歎曰: “善哉! 善哉! 乃至無有文字語言, 是真入不二法門.”). (賴永海 釋譯, 《維摩詰經》, 臺北: 佛光出版社, 1997, 197-202쪽)

16) 杭州는 사찰이 많기로 유명하다. 당대 이전에 360개의 사찰이 있었고, 송대에는 480개가 더 늘어났다. (施淑婷, <蘇軾參訪寺院之因緣>, 《人文社會學報》, 第二卷, 第一期, 2009, 32쪽)

소식은 熙寧 4년(1071) 항주에 도착하여 3일 쯤 되는 날 孤山을 유람하고 곧 바로 <臘日游孤山訪惠勤惠思二僧>을 지었다.

天欲雪, 雲滿湖,  
樓台明滅山有無.  
水清出石魚可數,  
林深無人鳥相呼.  
臘日不歸對妻孥,  
名尋道人實相娛.  
道人之居在何許,  
寶雲山前路盤紆.  
孤山孤絕誰肯廬,  
道人有道山不孤.  
紙窗竹屋深自暖,  
擁褐坐睡依團蒲.

.....  
茲游淡薄歡有餘,  
到家恍如夢蘧蘧.  
作詩火急迫亡逋,  
清景一失后難摸.

하늘에는 눈이 내리려는 듯, 호수에는 구름이 가득  
누대는 드러났다 사라졌다 산도 보일 듯 말 듯 하네.  
물 맑아 돌도 보이고 물고기도 셀 만한데  
숲이 깊어 인적은 없고 새들만 지저귀네.  
납일이나 집에 돌아가 처자식과 어울리지 않고  
도인 방문 핑계 삼아 사실은 스스로 즐기려 한다네.  
도인의 거처는 어디에 있나?  
보운산 앞의 길이 굽이진 그곳에 있네.  
孤山은 孤絶하니 누가 살려 하라만  
도인은 도가 있어 산 속도 외롭지 않으리.  
종이창의 대나무집 아늑하고 따뜻하니  
부들포에 앉아 털옷을 안고 자네.

담담했던 이 번 걸음 기쁨이 넘쳐  
집에 와도 황홀하여 꿈을 꾸듯 아른아른.  
화급하게 시를 지어 그 감흥 뒤쫓나니  
맑은 경치 한 번 놓치면 다시 그리기 어렵다네.

惠勤과 惠思는 모두 당시의 이름난 詩僧이다. 혜근은 歐陽脩가 소식에게 항주에 가면 그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할 정도로 문단에 알려진 인물이었다, 혜사는 王安石과 서로 시를 주고받을 정도로 시에 조예가 깊었다. 소식은 그가 처해있는 때와 장소에서 가능한 한 유쾌하게 지내고자 노력하였으므로, 항주에 도착하자 마음을 쉬게 해줄 아름다운 산수를 찾았고 사찰을 방문했던 것이다.

孤山에서 두 스님을 만난 산수유람은 소식에게 매우 황홀할 만큼 즐거웠다. 張說은 <癡湖山寺詩>에서 “빈산이 고요하니 도심이 생기고, 빈 골짜기 아득하니 들새 지저귀다(空山寂歷道心生, 虛谷迢遙野鳥聲).”하였다. 또 李翱은 <贈藥山惟儼詩>에서 “조용한 곳 가려 자연 정취 즐기니, 한 해 다가가도록 가고 오는 이 없다. 때로 곧장 외로운 봉우리 올라 달 아래 구름 헤치고 긴 휘파람

불어본다(選得幽居愜野情, 終年無送亦無迎. 有時直上孤峰頂, 月下披雲嘯一聲).” 하였다. 위의 시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소식의 이 시도 禪理를 담고 있으면서도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깊고 고요한 곳에서 詩僧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니 심사는 가라앉고 흥취는 높아졌을 것이다. 시 속에 靜中動·動中靜이 있고 淸深幽遠한 禪趣가 있다.

다음 <病中游祖塔院>은 소식이 38살(熙寧 6년 1073) 어느 날 병을 얻어 祖塔院이라는 절에 자적하러 갔다가 지은 작품이다.

紫李黃瓜村路香,	오얏과 오이 시골길은 향기롭고
烏紗白葛道衣涼.	검은 비단 모자 하얀 칩 도복은 서늘하네.
閉門野寺松陰轉,	문 닫힌 시골 절은 소나무 그늘로 덮여 있고
欹枕風軒客夢長.	창문에 베개 기대고 나그네 긴 꿈에 빠졌네.
因病得閑殊不惡,	병들어 한적함 얻으니 달리 나쁠 것 없고
安心是藥更無方.	마음 편안하니 약은 더욱 필요 없다네.
道人不惜階前水,	도인은 섬돌 앞 물을 아끼지 않고
借與匏樽自在嘗.	표주박 빌려주어 마음대로 맛보게 하네.

이 시는 '安心'<sup>17)</sup>하는 방법의 禪理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탑원은 西湖의 서쪽에 있다. 唐代에는 원래 法雲寺라고 불렀는데 宋代에 南泉·臨濟·趙州·雪峰 등 유명한 고승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소식이 어느 禪師를 찾아갔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병든 몸으로 서호까지 간 것을 보면 분명 마음을 편히 해 줄 자연과 선승이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탑원으로 가는 시골의 정취와 소나무 그늘 속의 인적 없는 시골 절은 지친 나그네의 심신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다. 소식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그는 병을 얻었으나 도리어 한적할 수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7) 二祖慧可는 “安心”으로 깨달음을 얻어 達磨大師의 법을 이었다. 혜가는 법명이 神光이다. 신광이 말했다: “제 마음이 불안하니 스승께서 편안히 해 주십시오” 달마가 답했다: “마음을 가져오면 편안케 해 주리라” 신광이 말했다: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안심을 주었느니라”(光曰: “我心未寧, 乞師與安.” 師曰: “將心來, 與汝安.” 光曰: “覓心了不可得.” 師曰: “我與汝安心竟.” (道原, 《景德傳燈錄》, 1卷, 《佛光大藏經·禪藏》, 臺北: 佛光出版社, 1994, 100쪽)

있다. 편안한 마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것이다. 좌절감과 원망 그리고 분노는 건강의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구는 마음을 더욱 여유롭고 청량하게 해 준다. 마치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듯하다. 淸代 方東樹는 《昭昧詹言》에서 이 시를 “風味가 매우 뛰어나 평범한 경지와 비교할 수 없고, 병중에 二祖의 安心과 연결 지어 자연의 本地風光과 결합한 것이다”<sup>18)</sup> 하였는데, 이는 소식의 참선 경지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식은 향주를 떠난 후 새로 부임해 가는 친구 晁端彥에게 <懷西湖寄晁美叔同年> 시를 보냈다.

嗟我本狂直,	아! 내 본래 지나치게 우직하여
早爲世所捐.	일찍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했나니.
獨專山水樂,	홀로 산수를 마음껏 즐기니
付與寧非天.	이 모두 하늘의 뜻이 아닌가?
三百六十寺,	삼백육십 개의 절을
幽尋遂窮年.	조용히 찾다보면 일 년이 다 되어갔네.
.....	
胡不屏騎從,	그대의 시중을 물리치고
暫借僧榻眠.	잠시 빌린 선승 의자에서 낮잠이나 즐겨보지 않겠나?
讀我壁間詩,	내가 벽에 써놓은 시를 읽으며
淸涼洗煩煎.	맑고 시원함으로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게나.

의분이 가득 했던 소식이 정치적으로 의욕을 상실한 후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杭州에서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지 이 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 (3) 修行·禪悟期

이 시기(39세 熙寧 7년 1074~49세 元豐 7년 1084)는 소식의 인생에서 가

18) 朴永煥, 《蘇軾禪詩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96쪽.

장 비애와 실의가 컸던 기간이며 문예전반에 가장 빼어난 작품을 남긴 때이다. 소식은 39세(熙寧 7년 1074) 가을 杭州를 떠나 密州·徐州·湖州 등에서 짧은 임직을 지냈다. 그러나 44세(元豐 2년 1079) 여름, 황제를 비판한 시를 지었다는 죄명을 받게 된다. 당쟁싸움의 불씨는 결국 소식을 감옥에 구금시켰다. 이 사건이 바로 저 유명한 烏臺詩案이다. 그는 張方平·范鎮·蘇轍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하였다가 45세(元豐 3년 1080)에 黃州로 5년간 유배되었다. 소식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自我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아래 <次韻王廷老退居見寄>는 소식이 43세(元豐 元年 1078)에 徐州太守로 임직하며 지은 시이다.

浪蕊浮花不辨春,	흔들리는 꽃 봉우리에 봄을 분별 못하고
歸來方識歲寒人。	돌아와 비로소 절개 있는 사람 알았네.
回頭自笑風波地,	생각하니 풍파 겪은 곳 우습고
閉眼聊觀夢幻身。	눈을 감고 잠시 보니 꿈과 허깨비 같은 몸이라네.

이 시는 인생이란 마치 꿈처럼 그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도 결국 깨고 보면 흔적이 없다는 '夢·幻'의 禪理를 말해주고 있다. 蘇門의 문인들은 소식을 곧은 소나무로 비유했었다. 이 때 소식은 친구들간의 갈등 속에서 굳은 절개로 흥중의 심정을 표출하여 수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짧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한 감개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1·2구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實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3·4구는 온갖 풍파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인생이 꿈이요 허깨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소식은 黃州로 유배된 후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참선을 깊이 하였다. <安國寺浴>은 45세(元豐 3년 1080)에 지은 작품이다.

老來百事懶,	늙으니 만사가 귀찮아져
身垢猶念浴。	몸의 때도 생각으로 씻고 싶네.
衰髮不到耳,	흰머리 귀에 닿지 않았지만
尚煩月一沐。	오히려 한 달 한 번 감기 성가시네.

山城足薪炭,	산위 성엔 땔나무 넉넉하고
煙霧濛湯谷。	수증기는 湯 골짜기에 자욱하네.
塵垢能几何,	먼지와 때 얼마나 될까
悠然脫羈梏。	유유히 굴레 벗어버렸다네.
披衣坐小閣,	옷 풀어 해치고 작은 누각에 앉아
散髮臨脩竹。	산발인 채 마른 대나무 바라보았네.
心困萬緣空,	마음의 노곤함은 만 가지 인연 따라 사라지고
身安一床足。	몸이 편안하니 평상 하나면 족하다네.
豈惟忘淨穢,	어찌 오직 깨끗하고 더러운만 잊고 싶나
兼以洗榮辱。	영예과 오욕도 함께 씻으려네.
默歸毋多談,	묵묵히 돌아가 많은 말 하지말자
此理觀要熟。	이 이치 반드시 익혀서 살펴야지.

文字獄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아난 소식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심신이 지쳐 머리를 감는 것도 몸을 씻는 것도 모두 귀찮게 여겨졌다. 단지 맑은 자연 속에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을 것이다. 소식은 절이 있는 산 속 湯谷 온천에서 몸을 담그고 나니 속박을 벗은 듯 몸도 마음도 상쾌해졌음을 느꼈다. 마음이 맑아지자 번뇌의 때도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마음의 번뇌가 “因緣으로 生滅”한다는 禪理이다. <題沈君琴>에서도 거문고 소리로 같은 선리를 보여준다. 소식은 세속의 영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고 화를 불러오는 말을 삼가야겠다고 의식을 가다듬고 있다.

소식은 <黃州安國寺記>에서 자신의 과실과 새로운 각오, 그리고 선 수행을 통해 얻은 경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는 “황주에 도착한 후 놀란 혼백을 가다듬고 스스로 새 삶을 모색하기 위해 고승들에게 근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밖에 없다. 5년 동안 하루 이틀 간격으로 安國寺를 찾아가 향을 피우고 고요히 앉아 내면을 깊이 성찰하니, 物我를 모두 잊고 心身이 텅 빈 경지에 이르렀으며 한 생각이 청정해지자 안팎으로 자유로웠다”<sup>19)</sup>고 하였다.

이 기간 소식은 동쪽 언덕에 雪堂을 짓고 발을 일구며 陶淵明 같은 전원생활

19) 藍吉富 主編, 《禪宗全書》 卷 94 / 徐長孺 輯, <黃州安國寺記>, 《東坡禪喜集》, 臺北: 文殊出版社, 1990, 266-268쪽.

을 하였다. 황주에 온지 3년째 되는 해 詩僧 參寥는 그를 찾아와 약 1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眞相이 곧 꿈이며, 꿈이 곧 眞相이다”<sup>20)</sup>라는 禪理를 깨우쳐 주게 된다. 삼료는 소식의 남은 인생에 知淸으로써 많은 영향을 주었다.

49세(元豐 7년 1084) 4월, 소식은 汝州로 옮기라는 명을 받고 정든 黃州를 떠난다. 가는 도중 그는 동생 蘇轍이 있는 筠州에서 잠시 체류하며 명승지 廬山을 수일 동안 유람하였다. 아래 <贈東林總長老>와 <題西林壁>은 廬山의 뛰어난 풍광을 묘사하였는데 소식이 도달한 높은 선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舉似人。	시냇물 소리가 바로 장광설이니 산색이 어찌 청정신이 아니리오? 밤에 열린 팔만사천 법문 훗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	--

橫看成嶺側成峰, 遠近高低各不同。 不識廬山眞面目, 只緣身在此山中。	가로로 보면 산줄기 세로로 보면 봉우리 원근고저 따라 각각 그 모습이 다르네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함은 단지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네.
--	---

첫 번째 시는 소식의 悟道詩이다. 소식은 廬山을 유람하다 東林寺의 常總 선사를 찾아가 법을 청했다. 선사는 선지식을 찾아 有情說法만 듣고자 하는 소식에게 자연의 無情說法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이 ‘有情·無情’의 禪理에 딱 걸리게 된다. 그래서 그 話頭를 깊이 의심하고 參究하며 돌아오는데, 순간 폭포소리를 들으며 환히 열리는 경지를 얻게 된 것이다.<sup>21)</sup> 깨닫고 보니 소리와 빛깔이 있는 그대로 모두 진리이다. 그런데 이 체험의 세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言詮에 떨어지면 이미 어긋난 것이다. 언어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詩句 밖엔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소식의 言外之境이 드러나 있다. 천하의 문장가 소식도 이 경지는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

20) 眞即是夢, 夢即是眞. (上揭書, <參寥泉銘>, 255쪽)

21) 國書刊行會 編, 《新纂大日本續藏經》, 第86冊 / 朱時恩, 《居士分燈錄》卷下, 東京: 國書刊行會, 1988.

이다.

두 번째 시는 여산의 면목으로부터 인간의 인식문제와 인생을 바로 보는 관점에 대해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主·客의 대립을 벗어나야 비로소 우주 인생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禪理이다. 洪邁는 《冷齋夜話》에서 “이 노인은 般若에 자유자재하여 군더더기 말이 하나도 없다. 붓 끝에 입이 달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도달할 수 없는 妙說을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sup>22)</sup> 하였다. 禪理를 담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감정과 정신에 여운을 주고 있어 소식의 禪境을 알 수 있게 한다.

두 작품은 모두 시아가 확 트인 禪悟의 경지를 얻고 지은 작품들이다.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은 참선인의 공안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 (4) 禪悟後期

이 시기(50세 元豐 8년 1085~66세 建中 元年 1101)는 소식의 官運이 가장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며 두 번째 박해로 최악의 환경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중 최후를 맞이한 기간이다.

소식이 50세(元豐 8년 1085) 되던 해 神宗이 붕어하고 哲宗이 즉위하였다. 소식은 태후의 신망을 받아 51세(元祐 元年 1086)부터 54세(元祐 4년 1089)까지 翰林學士知制에 임직한다. 이 때 黃庭堅도 정식으로 그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蘇門四學士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58세(元祐 8년 1093) 가을, 태후의 서거로 新法黨이 다시 득세하며 소식은 만년을 惠州와 澹州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소식은 달관된 禪悟의 정신세계로 인생의 마지막 행로를 초연히 겪어나갔다.

黃州 유배지에서 경사로 돌아와 조정 일에 몰두했던 53세(元祐 3년 1087)

22) 此老, 於般若橫說豎說, 了無剩語. 非筆端有口, 安能吐此不傳之妙乎. (藍吉富 主編, 《禪宗全書》 卷 94 / 徐長孺 輯, <禪喜紀事>, 《東坡禪喜集》, 臺北: 文殊出版社, 1990, 298쪽)

의 작품 <夜直玉堂, 攜李之儀端叔詩百餘首, 讀至夜半, 書其后>를 보기로 하자.

玉堂清冷不成眠, 伴直難呼孟浩然. 暫借好詩消永夜, 每逢佳處輒參禪. 愁侵碗滴初含凍, 喜入燈花欲斗妍. 寄語君家小兒子, 他時此句一時編.	옥당은 맑고 차서 잠 이루지 못하는데 함께 숙직하는 맹호연도 불러내기 어렵네. 잠간 좋은 시집 빌려서 긴 밤을 보내니 매 번 좋은 시구를 만날 때마다 문득 참선에 드네. 시름 젖은 연적 처음으로 얼음 머금고 기쁨이 든 등화 고운 자태를 다루고 있네. 그대 집의 어린 자제에게 말을 부치나니 다른 때 이 구절을 일시에 엮어보라고.
--	--

이 시는 소식의 “詩禪一味” 경지를 알 수 있게 한다. 李端叔은 소식의 막부에 있다가 후에 제자가 되었다. 이단숙의 문장은 張耒·秦觀과 우열을 다투었고, 시를 논하는 방법은 자못 禪味를 띄고 있어 蘇軾과 같았다.<sup>23)</sup> 소식은 이 때 翰林學士 일로 궁내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소식은 玉堂에서 숙직 한 그 날 단숙의 시를 한밤중까지 읽고 후기를 시로 남긴 것이다. 잠 안오는 옥당에서 좋은 시구들을 대하니 정신세계는 三昧에 든 것처럼 主·客이 없어졌다. 어느 덧 밤이 깊어 시름에 젖은 듯한 연적엔 찬 성애가 생기고 기쁨이 찬 듯한 타가는 등화는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郭紹虞는 “暫借好詩消永夜, 每逢佳處輒參禪” 시구를 《滄浪詩話》의 요지인 “以禪喻詩, 以悟論詩”의 연원으로 보았다.<sup>24)</sup> 소식은 禪悟를 체험하고 禪으로써 詩를 논했기에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은 59세(紹聖 元年 1094)에 先帝를 훼방하였다는 두 번째 죄명으로 惠州로 안치된다. 그는 유배지로 가는 길에 <南華寺>를 경유하며 “나는 본래 三世 수행인이었지만 중간에 한 생각의 실수로 이런 고통을 받는다”<sup>25)</sup>라 하고

23) 文章亦與張耒秦觀相上下, 故其論詩頗帶禪味, 與蘇軾同。(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269쪽)

24) 上揭書, 268-269쪽.

25) 蘇軾, <南華寺>: 我本修行人, 三世積精練. 中間一念失, 受此百年譴.

六祖慧能的 眞身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소식은 惠州에서 陶淵明 시를 벗 삼았고 선승들과 왕래하였다.

아래 시는 소식이 61세(紹聖 3년 1096)에 지은 <和陶桃花源并引>이다.

凡聖無異居, 清濁共此世. 心閑偶自見, 念起忽已逝. 欲知眞一處, 要使六用廢. 桃源信不遠, 杖藜可小憩.	범부와 성인이 따로 살지 않고 맑고 탁함이 이 세상에 함께 있네. 마음이 한가하면 뜻밖에 스스로 나타나고 생각을 일으키면 문득 이미 사라지네. 참된 곳을 알고자 하면 육용을 쉬어야 하네. 도화원은 진실로 멀지 않나니 지팡이 짚고 조금 쉴 수 있는 그 곳이네.
--	---

이 시에서는 “지혜로운 생활”에 대한 禪理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의 몸은 비록 유배생활을 하였지만 정신은 상대적인 것을 떠난 깨달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禪悟한 후이기 때문이다. 凡·聖, 清·濁이 둘 아나라는 의미는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근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지만, 뒷생각에 경계를 떠나면 곧 깨달음이다.<sup>26)</sup> 六根인 眼·耳·鼻·舌·身·意를 잘 다스려야 그 경지가 나타나게 된다. 소식은 혜주에서 현실을 받아들여 집착을 떠나는 생활을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있는 이상세계는 멀리 있는 별천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쉬어진 자리, 즉 혜주도 소식에게는 도화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和黃秀才鑿空閣>은 소식이 유배생활을 사면 받고 65세(元符 3년 1100)에 澹州에서 돌아오는 도중 廣州의 鑿空閣에 올라 지은 작품이다.

明月本自明, 無心孰爲境. 掛空如水鑿, 寫此山河影. 我觀大瀛海,	밝은 달은 본래 스스로 밝나니 無心을 누가 장소로 삼는가. 허공에 걸린 것이 물 거울과 같아 여기에 山河의 모습을 그린다네. 내가 넓은 바다를 보니
--	--

26) 前念着境即煩惱, 後念離境即菩提。(鄭丙朝, 《六祖壇經》, 韓國佛敎研究院, 1998, 58쪽)

巨浸與天永. 크게 가없는 하늘을 담아주네.  
 九州居其間. 九州도 그 사이에 살고  
 無異蛇盤鏡. 뱀이 구리거울에 비친 것과 다를 것 없네.  
 空水兩無質. 허공도 물도 둘 다 본질이 없어서  
 相照但耿耿. 서로 비추니 단지 반짝일 뿐이라네.

이 시에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본체와 작용이 나타나 있다. 달은 항상 존재하며 차별 없이 만물을 비추고, 바다는 흔적 없이 만물을 그린다. 달은 무엇을 일부러 비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은 저절로 그림자를 담아낸 것이다. 主·객은 한 몸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 달은 청정무구한 본래 마음에 비유된다. 달밤을 읊었으나 “마음의 거울 밝아서 비치는 것 걸림이 없으니, 확연히 밝고 투명하게 모래알 같은 세계에 두루 한다”<sup>27)</sup>는 禪理가 풍부하다.

소식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는 澹州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천지는 쌓인 물 가운데 있고, 九州는 큰 바다 가운데 있고, 중국은 작은 바다 가운데 있으니, 생물 치고 섬에 살지 않는 것이 있으리요?”<sup>28)</sup>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다. 바다 가운데 있을 때나 육지로 나왔을 때나 소식의 禪境은 변함이 없다. 禪悟 후에 얻은 넓은 우주관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확 트인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

#### 4. 맺음말

소식은 “시구를 묘하도록 하려면, 空과 靜을 꺼리지 마라. 고요한 까닭에 모든 것을 비우고, 빈 까닭에 온갖 경계를 담아낸다”<sup>29)</sup> 하였다. 필자는 이것을 소식의 선과 시세계라 이해하고 그 시에 나타난 禪境의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27) 心鏡明, 鑒無礙, 廓然瑩徹周沙界. (道原, <永嘉眞覺大師證道歌>, 《景德傳燈錄》, 卷30, 《佛光大藏經·禪藏》, 臺北: 佛光出版社, 1994, 1922쪽)

28) 天地在積水中, 九州在大瀛海中, 中國在少海中, 有生孰不在島者? (孔凡禮 點校, <試筆自書>,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0, 549쪽)

29) 蘇軾, <送參寥詩>: 欲令詩語妙, 無厭空且靜. 靜故了群動, 空故納萬境.

소식은 어려서부터 불교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교사상이 몸에 스며있었다. 후에는 佛書를 읽고 실상을 깊이 깨달았으며 그것에 공자와 노자에 더하니 널리 사물에 통하여 막힘이 없고 넓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sup>30)</sup> 그는 禪의 入門期에서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했고, 心醉期에서는 ‘마음 편안히 하기’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修行·禪悟期에서는 인생이 ‘꿈’과 같음을 절감함으로써 參禪에 몰입하여 ‘내외의 실상’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禪悟後期에서는 대립 없는 ‘분별을 떠난 경지’에서 현실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소식은 참선 전과 참선 시기 그리고 참선 후의 경지를 廬山에 비유하여 시로 나타냈는데 禪師가 표현한 3단계의 경지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人物 段階	(宋)蘇軾	(宋)青原惟信禪師
參禪前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물결이여 가보지 못해 천만가지 한이었는데. (廬山煙雨浙江潮, 未到千般恨不消)	산을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을 보니 물은 물이네. (見山是山, 見水是水)
參禪時期	가로로 보면 산줄기 세로로 보면 봉우리, 원근고저 모습이 다르네. (橫看成嶺側成峰, 遠近高低各不同)	산을 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을 보니 물은 물이 아니네.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禪悟後	가보고 돌아오니 별다른 일 없고 여산의 안개비 절강의 물결이네. (到得歸來無別事, 廬山煙雨浙江潮)	산을 보니 산은 바로 산이요 물을 보니 물은 바로 물이네. (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

위 대조표와 같이 소식이 나타난 禪境의 단계는 선사가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는 主·객이 대립된 상태이고, 2단계는 客을 떠나 主로 진입된 상황이며, 3단계는 主·객이 하나 된 物我一體의 경지라고

30) 後讀釋氏書, 深悟實相, 參知孔老, 博辯無礙, 浩然不見其涯也. (蘇軾, <亡兒子瞻端明墓誌銘>, 《樂城集》, 臺北: 中華書局, 全四冊, 1966, 1422쪽)

말 할 수 있다. 소식은 주로 比·興을 연용하여 시를 지었으나 참선 후에는 대체로 禪定으로부터 나온 '現量' 直觀의 사유방식으로 묘사하였다. 시구는 비록 평이하나 말 속에 뜻이 무궁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식이 실 천한 생활 속의 禪과 설리적인 禪詩는 江西詩派의 중주 黃庭堅과, 陳師道·楊 萬里·范成大·陸游 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 參考文獻 >

鄭丙朝, 《六祖壇經》, 韓國佛教研究院, 1998  
 曹圭百, 《蘇軾詩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최영준 외, 《소식의 시세계와 평론-(동과제발)》, 상·하, 신성출판사, 2008.  
 國書刊行會 編, 《新纂大日本續藏經》 第86冊 / 朱時恩, 《居士分燈錄》卷下, 東京: 國書 刊行會, 1988.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全六冊, 北京: 中華書局, 1990.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臺北: 明倫出版社, 1969.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道 原, 《景德傳燈錄》 1卷, 《佛光大藏經·禪藏》, 臺北: 佛光出版社, 1994.  
 藍吉富 主編, 《禪宗全書》 卷 94 / 徐長孺 輯, 《東坡禪喜集》, 臺北: 文殊出版社, 1990.  
 賴永海 釋譯, 《維摩詰經》, 臺北: 佛光出版社, 1997.  
 普 濟, 《五燈會元》, 上·中·下, 臺北: 中華書局, 1992.  
 朴永煥, 《蘇軾禪詩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蕭麗華, <東坡詩論中的禪喻>, 《佛學研究中心學報》 第六期, 2001.  
 蕭麗華, <東坡詩的《圓覺》意象與思想>, 《佛學研究中心學報》 第十一期, 2006.  
 蘇 軾, 《蘇東坡全集》, 河北: 中國書店, 1994.  
 蘇軾 撰 / 王文誥 輯註·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全八冊, 北京: 中華書局, 2007 重印.  
 蘇 轍, 《欒城集》 全四冊, 臺北: 中華書局, 1966.  
 孫昌武, 《佛教與中國文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8.  
 施淑婷, <蘇軾參訪寺院之因緣>, 《人文社會學報》 第二卷 第一期, 2009.  
 魏慶之, 《校正詩人玉屑》, 臺北: 世界書局, 1971.

< 中文提要 >

蘇軾<送參寥詩>云: “欲令詩語妙, 無厭空且靜, 靜故了群動, 空故納萬境; 鹹酸雜衆好, 中有至味永, 詩法不相妨, 此語當更請”, 這是蘇軾自述其作詩主旨, 偏重禪悟的例證。又劉熙載《藝概》云: “東坡詩善於空諸所有, 又善於無中生有, 機括實自禪悟中得來”, 可證明蘇軾由參禪體驗作詩文。

蘇軾生於佛教薰染的家庭, 處在禪宗振興之盛世, 喜歡駐足於寺院和交遊禪師, 加上一生遷謫十多州, 自號“東坡居士”而留下了許多富有禪理之佳句。蘇軾禪詩中可發現出其人的意境變化過程: 禪入門期、禪心醉期、參禪禪悟期、禪悟後期等。蘇軾禪悟後表明心得: 參禪前是“廬山煙雨浙江潮, 未到千般恨不消”, 參禪時是“橫看成嶺側成峰, 遠上高高低各不同”, 禪悟後是“到得歸來無別事, 廬山煙雨浙江潮”, 這三般見解就是禪家青原禪師的三個階段: “老僧三十年前未參禪時, 見山是山, 見水是水。及至後來, 親見知識, 有箇入處,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而今得箇休歇處, 依前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正是主客對立、離客爲主、主客合一的說明。

蘇軾與禪境變化十分精彩, 本文擬透過蘇軾禪詩, 探究其中表現的意境之深化樣相。

關鍵詞: 蘇軾、禪悟、禪詩、意境、參禪、段階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5	2009.9.17	2009.10.6	2009.10.12	2009.10.30